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4629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임○○
피고, 피항소인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오○○, 전○○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구합7517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8.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원고는 2017. 6.경부터 2019. 4.경까지 ○○에 소재한 D유한공사(D有限公司, 이하 'D'이라 한다)가 판매한 니코틴(이하 '쟁점 니코틴'이라 한다)을 B, 해외거래처 C 등(이하 '쟁점 거래처'라 한다)을 통해 수입하고 이를 원료로 한 전자담배 용액(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였다. 』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과세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바, 피고는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만들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함에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 니코틴은 '연초의 줄기'를 원료로 하여 만들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 니코틴으로 제조한 이 사건 제품은 구 담배사업법¹⁾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

1) 제1심판결에서 구 담배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담배사업법'으로 약칭하였다.



세대상인 '담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참조).

2) 갑 제10, 11호증, 을 제1, 2, 5, 10, 12,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수증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쟁점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이 사건 제품이 구 지방세법²⁾ 제47조 제1호,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 제6호,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하고,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제1심판결에서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지방세법'으로 약칭하였다.



② 원고는 과세관청이 충분한 사실관계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정부와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쟁점 니코틴이 E 내지 F에서 생산되어 D 및 쟁점 거래처를 거쳐 국내로 수입된 사실, 원고가 쟁점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③ 주○○○○○○○총영사관이 ○○ ○○성 정부를 통하여 ○○성 연초연엽공사(○○ 연초총공사에 소속된 국영기업)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성 연초연엽공사는 '농가로부터 담배 잎을 구매해 담배 제조상(○○에서는 담배 제조상 역시 국영기업에 속하며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에 제공한다. 연초연엽공사는 담배를 생산하지 않고 담배 잎 이외의 부분은 구매하지 않으며, 담배 잎 이외 줄기부분을 이용하지도 않는다'고 회신하였다(을 제5호증). F의 홈페이지에도 'F이 위치한 ○○성 G는 ○○성 연초전매국이 지정한 담뱃잎(연엽)을 폐기하여 담배 유효 성분에 사용하도록 지정한 단지'라고 소개하고 있다(을 제3호증).

④ ○○정부 정보교환 회신문(을 제2호증)에 의하면 E은 니코틴 생산 과정에서 잎을 제거하지 않고 제조 절차에 관해 담배 잎과 줄기를 분리한 후 분류된 잎을 뿔아 발효하여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소명하였다. 달리 E이 연초의 줄기만을 분리하여 니코틴을 추출 생산하는 별도의 공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⑤ 또한 원고에게 쟁점 니코틴을 수출한 D은 니코틴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고 니코틴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증만 가지고 있는데(을 제1호증), D의 홈페이지에는 '폐기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을 판매하는 벤처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바(을 제10호증), 위 사정들 및 경험칙에 비추어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는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한편 원고는, 과거 ○○○○○○연구원(○○○○)의 H센터장이었던 I이 (유)J 연구소 장으로서 작성한 2024. 7. 1.자 의견서와 2025. 4. 30.자 진술서(갑 제10호증의 1, 2) 및 K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환경보건분석실에서 작성한 2024. 11. 1.자 시험분석결과서(갑 제11호증)에 따르면 담배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여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2025. 4. 30.자 진술서에는 '2024년에는 최신 기법을 활용한 최적화된 추출방법을 사용하면 줄기에서 합리적인 니코틴 수율을 얻을 수 있다', '2017년 당시에 줄기 추출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였으나, 생산·유통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져 굳이 그렇게 생산하는 사례는 없다. 이미 싸고 좋은 양질의 제품이 있는데 더 비싸고 생산비도 많이 드는 제품을 현실적으로 생산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기재가 있는 점, ㉡ 위 의견서 및 진술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니코틴 추출의 경제성에 관한 사정이 달라졌고, 담배의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환경상 이점도 있어 많은 담배 회사들 사이에서 관행이 되고 있다는 취지인데, 2017. 4. 10. 작성된 기존 의견서(을 제12호증)가 당시 상황에서 허위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새로운 의견 및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양 의견서의 작성시점과 작성자 신분에 큰 변화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 증거들으로써 반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연초의 줄기를 통해 니코틴을 생산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수입된 쟁점 니코틴이 순수하게 연초의 줄기에서만 추출되었음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쟁점 니코틴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인정을 방해하기에 부족하다.



⑦ 따라서 쟁점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만 추출된 니코틴으로서 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심○○

판사 이○○

판사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09

별지1

목 록

처분일자	과세번호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가산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합계
2022. 7. 8.	000001	46,534,800	31,596,660	20,470,650	9,805,230	108,407,340
	000002	71,554,320	47,897,740	31,476,740	14,774,860	165,703,660
	000003	150,927,240	99,670,830	66,392,890	30,566,620	347,557,580
	000004	203,038,680	132,257,350	89,316,710	40,316,660	464,929,400
	000005	138,643,560	89,021,640	60,989,300	26,962,750	315,617,250
	000006	150,757,680	95,443,170	66,318,300	28,721,790	341,240,940
	000007	157,728,480	98,294,800	69,384,750	29,362,930	354,770,960
	000008	166,583,280	102,363,750	73,279,980	30,373,810	372,600,820
	000009	154,883,640	93,873,410	68,133,310	27,668,250	344,558,610
	000010	163,003,680	97,278,960	71,705,310	28,451,940	360,439,890
	000011	174,627,960	102,592,170	76,818,830	29,766,520	383,805,480
	000012	167,449,920	96,868,100	73,661,210	27,880,030	365,859,260
	000013	150,249,000	85,565,300	66,094,530	24,421,260	326,330,090
	000014	150,230,160	84,157,430	66,086,240	23,803,600	324,277,430
	000015	161,326,920	88,873,380	70,967,710	24,901,850	346,069,860
	000016	168,825,240	91,383,400	74,268,220	25,346,310	359,823,170
	000017	167,958,600	89,453,070	73,884,980	24,573,400	355,870,050
	000018	165,377,520	86,590,010	72,749,570	23,541,030	348,258,130
	000019	150,870,220	77,704,190	66,367,800	20,908,510	315,850,720
합계		2,860,570,900	1,690,885,360	1,258,367,030	492,147,350	6,301,970,640



별지2

관계 법령

■ 구 담배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9. "판매"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제2항제6호 관련)

구분	종류	세율
피우는 담배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궤련형: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끝.